

구작가



[해제]

<구작가>는 앞뒤장이 떨어진 전적(典籍) 형태로 필사된 가사작품이다. 작자와 제작시기, 그리고 필사와 필사시기 모두 미상이다. 줄글형태의 연속으로 필사하고 있으며, 필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중요한 낱말을 모두 한문으로 표기하는 등 국한문혼용체로 필사되어 있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비둘기와 까치의 대립구도를 한 축으로 설정하여 비둘기의 텃세에 대해 까치가 반격하여 급기야는 죽음까지 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발단은 비둘기가 까치의 살 집을 내어준다고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비둘기를 공격하여 집을 부수려고 하자 비둘기가 까치의 가슴 한가운데를 발로 차 숨지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다양한 전거(典據)를 통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점이 특색으로, 작자의 수준높은 교양지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음보나 율격이 엄격한 정격가사체보다 자유로운 율격을 보이고 있어 변격가사에 해당한다. 특히 동물을 소재로 한 금언체(禽言體) 가사는 필자의 과문 탓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내용이다. 비슷한 유형의 이본조차 없을 정도이다. 우리 문학작품 중 고전 소설 등에서 동물을 의인화하여 작품을 구성을 이룬 경우는 더러 있지만 가사작품에서는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앞으로 연구대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원문]

御製關東八景
 訂蘭岸芷繞西東
 十里烟霞暎水中
 朝曠日晴千萬狀
 臨風把酒興無窮
 右鏡浦臺

구작가

예송시절 산동사의 흔증심이스되
 성은간요일흠은치라
 性質이敏捷하고 지조百工이라
 집이年久頽落하여新基을門前
 萬丈古木의定하고 못씨집을지을시
 天下일흠난高樓甲第을다보되
 秦始皇에하阿房宮과漢武帝文愔閣과
 漢나라慶福宮과漢陽의十二萬戶
 曹操에銅雀臺와岳陽樓姑蘇臺여
 義州慟君亭平壤鍊光亭
 安州百祥樓成川降仙樓
 黃州月波樓海州공희臺며
 密陽의嶺南樓축성루望海臺
 淸心亭무진臺樂民樓압구덩
 通川叢石亭固城三日浦
 杆城淸澗亭襄陽落山臺
 江陵鏡浦臺三陟竹西樓
 蔚珍望洋亭平海月松亭
 各處樓舍을다보되
 高則高矣華則華矣
 오히려쫓과갓지못하여설치고所見을니여지으되
 庭향老木上上枝에이리늦코저리늦코
 子坐午向門을니여天圓地方
 다應하여立柱上樑하고
 늡그난萬丈이요成造을다畢커다
 景槩거룩하다付壁書붓쳐시되
 數幅花牋紙라風射破窓燈易滅이요
 月穿踈屋夢難成을近水樓臺先得月요
 向陽花木易爲春을紅飛絶壑驚霜葉이요

白立層臺翫月僧을官梅綻白玉千片
驛柳垂黃金萬縷라
簾因見月踈編竹이요籬爲看山短神松을
故鴻得意天空濶이요卧柳生心水同動搖라
오히려光彩不足다호고達近親戚라
니웃朋友을라모오고落成宴을始仰할세
飲食의豊備함파布凍의사치호미
이로비길디업더라
가즌風樂을一時의陳奏호니
성연水에거문고며弄玉에玉통쇼라
稽琴笛필여당구복다갓추고
羽調첫티긴영산잔영산중영
산도들이밋도들이봉어샤길구락
白鷺난춤을추고黃鶯은노리할제
그구시불만호나잇씩洞里에
한비두리이스되本心이어지어지못호여
平生에남의집頃取호기로괴양을삼난지라
비두리不義을나여집을아스려할세
상심쥬취케먹코씩아로노니난
빅반에飄然이나라들어웃지안난말노
헛복호며일으되
여바라이노름이무삼노름인지아지난못호거니와
今日이여의날과달나鳳凰大君의國忌八齊일이라
三千羽族이몰을날이아니어든
덧지일이낭자호노호며
즉시외고리를척호여왈
네歌詞을훈다호니다알고호난다
大抵歌詞가여러가지라
隱逸士에處士歌와風流郎에春眠曲
李太白襄陽歌道處士시상가
金春澤玉雪歌정동강관동別曲
商山四皓紫芝曲千古雄英長恨歌
伯夷叔齊採薇歌호가호牧童歌勸酒歌
달거리白鷗歌樂貧歌漁夫詞梅花歌
여러가지를치레호난거시가스어든
일싱너호난거슨외마디쇼리로외실농무숨쇼리되며
또白鷺에춤보니더옥이우습또다
大抵춤추난법도여러가지라

唐太宗七德舞鴻門宴
項將舞楊太真에羽衣舞起
飲帳中虞姬舞趙飛燕에
掌上舞격석舞흔할舞
봉춤鶴춤손춤발춤쥐덩순에
영덩춤억게춤男舞女舞十二舞을
초려로추난거시춤이든
일싱너추난춤은날이를무익키퍼고
넙풀거려디슬만날게하니
기무어시춤이되리요
관광諸禽을옥제이誹謗하니
갓치마음이엇지편하니
간치卽時니달노말하니
네무슴심스로일엇뜻不好케하니
今日노름은平生심을다하니
하니일이어든무슴심샤노
이난필경니집을奪取하니
니아무리심이업스나너를告官處置하니
비도리이말을듯고더욱성노여
彼此不答相關之界
비두리간치胷堂을초니간치
棄色하니눅푼날개찌러져氣絶하니
觀光諸禽이다훗터지고
다만암간치망지쇼조할뿐이요
비두리일변검니여卽時만져보니
숨기난이스나열의아음은위턱하니
즉시의원을청하니제혈의針도노하며
온갖약으로치료하니
一無效驗하니고終時致斃하니
自洞里로서定杞을結縛하고
우선암간티告官간다
잇세관元은海東蒼보라미라
맛춤산형을가려하니意外에躑告가드니
率公兄烏鵲等하고隨輩불너 分付하니
檢屍에이근刑吏을되령하니萬一索賂하니말이
嚴스면治할거시니 一益嚴禁하니
늘근刑房씩옥이난시빅下人伸敕한다
날닌差使난춘이난星火갓치발셔간네

監床기러기工房막마귀通引구저비
 前陪軍奴독슈리後陪軍奴富興
 압雙羅捋덜거기日傘빗가마귀자견驅從
 구지네聽令급장조롱티밧튼牽馬
 뒷갓치기싱흔雙삿더고리
 房子공식茶母할미식囉叭手계
 산이식눅슈소식자쥬숙슈식칼지
 텅동오리의싱황시관직왜발이다쥬어거나리고
 南距二十里八원방쇼지명
 鄧위촌간치령尸處에다다라
 各人等を눅招할식
 우선암간티問目할식
 尸親암간티年이二十이라
 알等너의지아비가엇떠흔놈으로쓰와
 何月何日의죽으며
 疇중기장은과위습득인지선납흐며
 死者의나이얼마며身上의무슴허물有無와
 其時參證을仔細히아리라
 암간티알이되死者난即矣身之아비요
 年今十六歲라
 今十六日의身矣雌雄이
 집을시로이짓삼고落成宴을흐읍난데
 비두리공연이執言흐와
 矣身之비아를毆打致死흐오니
 이달은쁘지아니라先爲奪家之計라
 닉중은집을쥬마흐오되終時不聽흐고
 足躑胷堂흐여인하여죽소오며
 身上斑痕段은長臺의出入씩가
 公子의金丸마자左腋落羽處一二읍고
 伊日間證은저비쇠고리杜鵑白鷺기러기오니
 일일納招흐읍소서
 幼學외고리年이二十이라
 슬등너矣身이鬪鬩委折을
 仔細이알이여獄案을理定케하라
 뵈고리만져알이되
 身段은出自幽谷흐여遷于喬木이라
 山門의봄이드니垂楊黃金이라
 絲絲嫩柳를自作金梭흐여

九十春光을歷歷케빠닌후의
 金生麗水밧비나큰입은고의물돌이고
 三月夕陽路의綿綿이노리홀제
 무심훈아히들은打起黃鸝兒라
 輕飛移株하여征婦의夢을시키고
 晚到東山하여一醉桃紅酒라
 渭城앗츨비의客舍青青柳色新을
 柳綠桃紅이다모도니부귀라
 綿綿蠻蠻舌노花諸의노리하니
 詩人은글을음고愁人은不寐로다
 朝日의喚友東西陌하고暮夕投金上下枝라
 五柳村차자가니垂楊更帶朝烟이라
 細柳嶺도라드니日暮西山하고
 明日復如此라제일이이러커든
 남의실음어이알니
 前後死傷은全然不知오니
 詳考處置하옵쇼셔
 幼學제비年이二十이라
 슬등너의신은鬪鬪委折을仔細이아리라
 제비알이되矣身段은本이王謝堂之餘種으로
 主人을여힌후의飛八百姓家하니
 豈無懷舊之心乎아
 江南속빈농게蟄虫이되엇섯가
 禹貢山川外의春節을僥倖만나
 舊時王謝燕이飛八百姓家라
 舍泥作巢하여풀을자로뢰락하고
 사합분접하여華閣으로도라드니
 雕樑느즌날에如歌如語로다
 止只字불우면서雄飛從雌조홀시고
 교蹴楊花하을저개日暖風和조홀시고
 雲淡風輕好良辰의
 飛來飛去興을겨워暮烟韻頗하여
 簾外의紛紛이라
 알나아식기치니먹이기얼범쏘다
 三月三日잠간와서九月九日도라가니
 何가의聞見鵲鳩之鬪乎잇가
 前後死生以不得聞이오니
 詳考處置하옵쇼셔

幼學杜鵑이年이二十이라
슬등너의신은鬪鬪委折을仔細이알이라
杜鵑이알이되
矣身은本이蜀帝餘魂으로
落在下土하니豈無懷國之心乎아
空山の놈피올나古國을바라보니
錦江이寂寞하고蜀城이香然이라
滿江愁懷을노리로화답하며
杜子美어진마음夜月の起徘徊라
呼天에天漠漠이요地呼에地不應을
東嶺에도든달이西峰의거지도록
예왜울고제왜우니
招國이千日哀라
地老天荒의此恨이不減이요
海枯石爛의此情을難消로다
萬里의울어오문미귀한마음이요
千里의啼送함은싱각한눈물이라
魂飛春樹하니슬푸미가이엷고
血染花枯하니冤이다시김벗쏘라
제일이리러흠뻐더러
在山之日是多하고在家之日은少하니
何鳴에聞見鵲鳩之鬪乎잇가
詳考處置하옵쇼셔
幼學기러기늑이四十이라
슬등矣身은本이隨陽之鳥로居在江上할식
昨夜西風送群鴈하니飛空青天亂紛紛을
影過青塚三更月이요聲落蒼梧萬里雲을
봉고八月식벽달의一陣이噉噉飛라
瀟湘何事等閑廻오水碧沙明兩岸苔라
二十五絃彈夜月에不勝清怨却飛來라
青天의놈피떠서白雲을무릅쓰고
瀟湘江나려간니七百里廣闊헌데
群山一點靑을日斜遠浦하니
쭈쭈리나려오고無捲青天하니字字이날아쁘다
雁海無人헌데蘇郎의萬古貞忠邊地에牧羊羔라
김흔삼떠어나어矣身의발의미며
信信이付託하되
이길노밧비날아漢陽城臺도라드러傳하여달나하니

아무리微物인들그信인야이줄소나像
信上林去來隔月분덜어
秋南春雁은三千羽族이衆所無知오니
何暇의聞見鵲鳩之鬪乎잇가
저간위절은全無不實오니
詳考處置호옵쇼셔
幼學白鷺나이七十이라
솔동矣身은雖曰羽族이나兼同水族이라
一生踪跡을付支江湖호니
志在蘆月이요友在漁前이라
短岸踈雨에江南을뵈부다가鷺人遠飛去호니
直向使君灘을西斜山田의흔가이날이덕의
桃花流水의鰕魚가살지거다
紅蓼밭근달의漁笛數聲秋滿江蘆荻에
霞鵝이석거날고秋水잔잔호여호날과흔빗치라
杜子江楊子江을니웃숨아버려두고
瞥瞥全鱗을任意로산횡호니
禁호리뉘이슬이
八景이쫓타호니차례로다보리라
洞庭에秋月이며瀟湘江夜雨로다
漁村의落然호고江天의暮雪이라
遠浦歸帆도조커니와平沙落雁이景이로다
山市靑嵐을보고나니烟寺暮鐘이쫓출시고
八景을다본후에세류령도라드니
무인古磯에蒼苔만나마잇다
踪跡이이러흔즉아난비水族이라
海市物種이나본뒤로이로리라
鯉魚鯁魚蘆魚黃魚
芒魚蓮魚石魚烏賊魚
鱒魚文魚紅魚松魚
魴魚銀魚雲魚靑魚
칼치준치복아지海蓼田螻
가우리가물치黃大口白大口
大蛤中蛤小蛤春蝻
冬蝻싱발이大게中게小게
말송게밤게엽식우자라도로목메럿티공티
복아지가제미뵈갈이눈검덩이날별이중고기
무당고기버드당이쇠일이돌움티슴티병어흠蛤

구작가

빅암장이을창이갓튼水族은알녀니와
其餘鵲鳩之鬪의小禽이何關이리요
詳考處置흐옵쇼셔
덩범비두리를잡바들려문목할세
이놈너난연何事飯으로쓰와
何月

李生員宅前

[현대역]

(어제관동팔경)御製1)關東八景

정난안지요서동(汀蘭岸芷繞西東) 호숫가의 물풀들 가지런히 동서로 둘러있고
십리연하영수중(十里烟霞暎水中) 십리호수 물안개는 수중에도 비치네
조에일청천만상(朝曠日晴千萬狀) 아침햇살 저녁노을 천만가지 형상인데
임풍파주흥무총(臨風把酒興無窮) 바람결에 잔을 드니 흥겨웁기 그지없네
우경포대(右鏡浦臺)

구작가

예송시절 산동땅에 한 중생 있으되

성(姓)은 간이요 이름은 치라2)

성질(性質)이 민첩(敏捷)하고 재주 백공(百工)이라

집이 연구(年久) 퇴락(頽落)하여 신기(新基)를 문전(門前)

만장고목(萬丈古木)의 정(定)하고 못떠 집을 지을새

천하(天下) 이름난 고루갑제(高樓甲第)3) 읊다보되

진시황(秦始皇)의 아방궁(阿房宮)과 한무제(漢武帝) 문창각(文窓閣)과

한(漢)나라 경복궁(慶福宮)과 한양(漢陽)의 십이만호(十二萬戶)

조조(曹操)에 동작대(銅雀臺)와 악양루(岳陽樓) 고소대(姑蘇臺)여

의주(義州) 통군정(慟君亭) 평양(平壤) 연광정(鍊光亭)

안주(安州) 백상루(百祥樓) 성천(成川) 강선루(降仙樓)

황주(黃州) 월파루(月波樓) 해주(海州) 공해대(控海臺)며

밀양(密陽)의 영남루(嶺南樓) 축석루(矗石樓) 망해대(望海臺)

청심정(淸心亭)무진대(臺) 낙민루(樂民樓) 압구정(鴨鷗亭)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 고성(固城) 삼일포(三日浦)

간성(杆城) 청간정(淸澗亭) 양양(襄陽) 낙산대(洛山臺)

강릉(江陵) 경포대(鏡浦臺) 삼척(三陟) 죽서루(竹西樓)

울진(蔚珍) 망양정(望洋亭) 평해(平海) 월송정(月松亭)

각처루사(各處樓舍)를 다보되

고즉고의(高則高矣)4) 화즉화의(華則華矣)5)

오히려 뜻과 같지 못하여 떨치고 소견(所見)을 내어 지으되

침향(沈香) 노목상상지(老木上上枝)에 이리놓고 저리 놓고

자좌오향(子坐午向) 문(門)을 내어 천원지방(天圓地方)

다 응(應)하여 입주상량(立柱上樑)하고

높이는 만장(萬丈)이요 성조(成造)를 다 필(畢)커다

경개(景槩) 거룩하다 부벽서(付壁書) 붙여시되

수목화전지(數幅花牋紙)라 풍사파창등이멸(風射破窓燈易滅)이요

월천소옥몽난성(月穿疎屋夢難成)을 근수누대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이요

향양화목이위춘(向陽花木易爲春)을 홍비절학경상엽(紅飛絕壑驚霜葉)이요

백립층대완월승(白立層臺翫月僧)을 관매정백옥천편(官梅綻白玉千片)
 역류수황금만루(驛柳垂黃金萬縷)라
 영인경월소편죽(簾因見月疎編竹)이요 이위간산단신송(籬爲看山短神松)을
 박흥득의천공활(故鴻得意天空濶)이요 와류생심수동동요(臥柳生心水同動搖)라
 오히려 광채부족(光彩不足)타하고 달근친척(達近親戚)이라
 이웃 봉우(朋友) 올라모으고 낙성연(落成宴)을 시앙(始仰)할세
 음식(飮食)의 풍비(豐備)함과 포속(布漑)의 사치(奢侈)함이
 이로 비길데 없더라
 갓은 풍악(風樂)을 일시(一時)에 진주(陳奏)하니
 성연수(水)에 거문고며 농옥(弄玉)에 옥(玉)통소라
 계금적(稽琴笛) 필여 당구북 다갓추고
 우조(羽調)첫에 긴영산잔 영산중영
 산도들이 민도들이 봉어사 길구나
 백로(白鷺)는 춤을 추고 황앵(黃鶯)은 노래할제
 그것이 불만하나 이때洞里(洞里)에
 한 비둘기 있으되 본심(本心)이 어지어지6) 못하여
 평생(平生)에 남의 집 이취(頃取)하기로 기양(飢穰)7)을 삼는지라
 비둘기 불의(不義)를 내어 집을 빼앗으려 할제
 상삼주(桑椹酒)8) 취(醉)케 먹고 백아로 노니는데
 배반에 표연(飄然)히 날아들어 묻지 않는 말로
 현혹(眩惑)하며 이르되
 여봐라 이 놀음이 무슨 놀음인지 알지는 못하거니와
 금일(今日)이 여느 날과 달라 봉황대군(鳳凰大君)의 국기팔제(國忌八齊)일이라
 삼천우족(三千羽族)이 모를 날이 아니어든
 어찌 이리 낭자(狼藉)하뇨 하며
 즉시 꼬고리를 책하며 왈
 네 가사(歌詞)를 한다하니 다알고 하는다
 대지가사(大抵歌詞)가 여러 가지라
 은일사(隱逸士)에 처사가(處士歌)와 풍류랑(風流郎)에 춘면곡(春眠曲)
 이태백(李太白) 양양가(襄陽歌) 도처사(道處士) 시상가
 김춘택(金春澤) 옥설가(玉雪歌) 정송강(鄭松江) 관동별곡(關東別曲)
 상산사호(商山四皓) 채지곡(紫芝曲) 천고영웅(千古雄英) 장한가(長恨歌)
 백이숙제(伯夷叔齊) 채미가(採薇歌) 한가한 목동(牧童歌) 권주가(勸酒歌)
 달거리 백구가(白鷗歌) 낙빈가(樂貧歌) 어부사(漁夫詞) 매화가(梅花歌)
 여러 가지를 차례로 하는 것이 가사(歌辭)어든
 일생 너하는 것은 외마디 소리로 꼬꼬리롱 무슨 소리되며
 또 백로(白鷺)에 춤을 보니 더욱이 우습도다
 대지(大抵) 춤추는 법도 여러 가지라

당태종(唐太宗) 칠덕무(七德舞) 흥문연(鴻門宴)
 항장무(項將舞) 양태진(楊太真)에 우의무기(羽衣舞起)
 음장중(飲帳中) 우희무(虞姬舞) 조비연(趙飛燕)에
 당장상무(掌上舞) 격석무(舞) 흔할무(舞)
 봉춤 학(鶴)춤 손춤 발춤 구경꾼에
 엉덩춤 어깨춤 남무여무(男舞女舞) 십이무(十二舞)를
 차례로 추는 것이 춤이거든
 일생 너 추는 춤은 날개를 무게있게 펴고
 나풀거려 띠끌만 날게 하니
 그 무엇이 춤이 되리요
 관광제금(觀光諸禽)9)을 옥제이10) 비방(誹謗)하니
 까치 마음이 어찌 편하리요
 간치 즉시(即時) 내달아 말하되
 네 무슨 심사(心思)로 이렇듯 불호(不好)케 하느냐
 금일(今日) 놀음은 평생심(平生心)을 다하여
 하는 일이어든 무슨 심사이뇨
 이는 필경(畢竟) 내집을 탈취(奪取)하려 하는게요라
 내 아무리 심(心)이 없으나 너를 고관처치(告官處置) 하리라
 비들이 말을 듣고 더욱 성내어
 피차부답(彼此不答) 상투지계(相關之界)
 비들이 간치 흉당(胃膈)11)을 차니
 간치 기색(棄色)하여 높은 날개 떨어져 기절(氣絕)하니
 관광제금(觀光諸禽)이 다 흩어지고
 다만 암간치12) 망지소조(罔知所措)13) 할 뿐이요
 비둘기 일변(一便) 겁내어 즉시(即時) 만져보니
 숨기14)는 있으나 열의 아홉은 위태(危殆)한지라
 즉시 의원(醫員)을 청하여 제혈(諸血)15)의 침(針)도 놓으며
 온갖 약으로 치료하되
 일무효험(一無效驗)하고 종시치폐(終時致斃)하니
 자동리(自洞里)로써 정기(定杞)를 결박(結縛)하고
 우선 암간치 고관(告官)16)간다
 이때 관원(官員)은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라
 마침 산행(山行)을 가려하더니 의외(意外)에 발고(發告)17)가 드니
 솔공형오작등(率公兄烏鵲等)하고 수배(隨輩)불러 분부(分付)하되
 검시(檢屍)18)에 익은19) 형리(刑吏)를 대령(待令)하라
 만일(萬一) 색뢰(索賂)20)하는 말이
 엄(嚴)하면 치(治) 할 것이니 일익엄금(一益嚴禁)21)하라
 늙은 형방(刑房) 따오기는 시배하인(下人) 신칙(伸勅)22)한다

날랜 차사(差使)는 춤이 난 성화(星火)같이 벌써 갔네
 감상(監床) 기러기 공방(工房) 역마귀 통인(通引) 구저비
 전배군노(前陪軍奴)23) 독수리 후배군노(後陪軍奴) 부흥(富興)
 앞쌍나장(雙羅將)들 거기 일산(日傘)빛 까마귀 자견구종(驅從)24)
 굳이 네 청령(聽令)급장 조롱태25) 받은 견마(牽馬)
 떼까치 기생 한쌍(雙)딱따구리
 방자(房子)공새 다모(茶母)할미새 나팔수(囉叭手)깨
 산이새 납수소서 자주 숙수새 칼제
 청동오리의 생황새 관직 왜발이 다주어 거나리고
 남거이십리(南距二十里) 팔(八)원방쇼 지명
 정위촌 간치령 시처(尸處)에 다다라
 각인등(各人等)을 납초(招)할새
 우선 암간치 문목(問目)할새
 시친(尸親)26) 암간치 년(年)이 이십(二十)이라
 알등(等) 너의 지아비가 어떠한 놈으로 싸워
 하월하일(何月何日)에 죽으며
 행중기장은 과위습득인지 선납하며
 사자(死者)의 나이 얼마며 신상(身上)의 무슨 허물 유무(有無)와
 기시삼증(其時參證)27)을 자세히(仔細)히 아뢰라
 암간치 아뢰되 사자(死者)는 즉의신지(卽矣身28)之) 아비요
 연금(年今)29) 십육세(十六歲)라
 금십육일(今十六日)에 신의자웅(身矣雌雄)이
 집을 새로이 짓고 낙성연(落成宴)을 하옵는데
 비둘기 공연히 집언(執言)30)하여
 의신지(矣身之)아비를 구타치사(毆打致死)31) 하오니
 이 다른 뜻이 아니라 선위탈가지계(先爲奪家之計)32)라
 나중에 집을 주마 하오되 종시불청(終時不聽)33)하고
 족척흉당(足躑胸堂)34)하여 인하여 죽사오며
 신상반흔단(身上斑痕段)35)은 장대(長臺)의 출입(出入)타가
 공자(公子)의 금환(金丸)36)맞아 좌액낙우(左腋落羽)37) 처일이(處一二)옴고
 이일간증(伊日間證)38)은 제비 꾀꼬리 두견백로(杜鵑白鷺) 기러기오니
 일일 납초(納招)39)하옵소서
 유학(幼學)40) 꾀꼬리 년(年)이 이십(二十)이라
 살등 너의신(矣身)이 투홍위절(鬪鬩委折)41)을
 자세(仔細)히 알리어 옥안(獄案)42)을 이정(理定)43)케 하라
 꾀꼬리 먼저 알리되
 신단(身段)은 출자유곡(出自幽谷)44)하여 천우교목(遷于喬木)45)이라
 산문(山門)의 봄이 드니 수양황금(垂楊黃金)이라

사사누류(絲絲嫩柳)46)를 자작금사(自作金梭)47)하여
 구십춘광(九十春光)48)을 역력(歷歷)케 짜낸 후에
 금생여수(金生麗水) 바삐 나른 입은 고이 물들이고
 삼월석양로(三月夕陽路)의 면면(綿綿)히 노래할제
 무심한 아이들은 타기황앵아(打起黃鸝兒)49)라
 경비이주(輕飛移株)50)하여 정부(征婦)51)의 몽(夢)을 깨고
 만도동산(晚到東山)52)하여 일취도홍주(一醉桃紅酒)53)라
 위성(渭城) 아침비에 객사청청유색신(客舍青青柳色新)54)을
 유녹도홍(柳綠桃紅)55)이다 모두 내 부귀(富貴)라
 면면만만설(綿綿蠻蠻舌)56)로 화제(花譜)57)를 노래하니
 시인(詩人)은 글을 읊고 수인(愁人)58)은 불매(不寐)59)로다
 조일(朝日)의 환우동서맥(喚友東西陌)60)하고 모석투금(暮夕投金)61) 상하지(上下枝)라
 오류촌(五柳村) 찾아가니 수양갱대(垂楊更帶) 조연(朝烟)이라62)
 세류령(細柳嶺) 돌아드니 일모서산(日暮西山)63)하고
 명일(明日) 복여차(復如此)64)라 제 일이 이럴거든
 남의 시름 어이 아리
 전후사상(前後死傷)65)은 전연(全然)66) 부지(不知)오니
 상고처치(詳考處置)67) 하옵소서
 유학(幼學) 제비년(年)이 이십(二十)이라
 살등 너의 신은 투흥위절(鬪鬪委折)을 자세(仔細)히 아뢰라
 제비 아뢰되 의신단(矣身段)은 본(本)이 왕사당지(王謝堂)68)之) 여종(餘種)으로
 주인(主人)을 여윈 후에 비팔백성가(飛八百姓家)하니
 기무회구지심호(豈無懷舊之心乎)69)아
 강남(江南) 속빈 나무에 칩충(蟄虫)70)이 되었다가
 우공(禹貢)71) 산천외(山川外)의 춘절(春節)72)을 요행(僥倖)73) 만나
 구시(舊時) 왕사연(王謝燕)이 비팔백성가(飛八百姓家)라
 함니작소(含泥作巢)74)하여 풀을 자주 뇌략(賂略)하고
 사함분접하여 화합(華閤)으로 돌아드니
 조량(雕樑)75) 늦은 날에 여가어어(如歌如語)76)로다
 지지자(止只字) 부르면서 웅비종자(雄飛從雌)77) 졸을시고
 교축양화(嬌蹴楊花)78) 하울적에 일난풍화(日暖風和)79) 졸을시고
 운담풍경(雲淡風輕)80) 호량신(好良辰)81)의
 비래비거(飛來飛去)82) 흥(興)을 겨워 모연힐향(暮烟頡頏)83)하여
 염외(簾外)에 분분(紛紛)이라
 알날아 새끼치니 먹이기 어렵도다
 삼월삼일(三月三日) 잠깐 와서 구월구일(九月九日) 돌아가니
 하가(何暇)84)에 문견(聞見)85) 작구지투호(鵲鳩之鬪乎)잇가
 전후사생(前後死生) 이부득문(以不得聞) 이오니

상고처치(詳考處置) 하옵소서
유학(幼學) 두견(杜鵑)이 년(年)이 이십(二十)이라
살등 너의 신은 투흥위절(鬪鬪委折)을 자세(仔細)히 아뢰라
두견(杜鵑)이 아뢰되
의신(矣身)은 본(本)이 촉제여혼(蜀帝餘魂)86)으로
낙재하토(落在下土)87)하니 기무회국지심호(豈無懷國之心乎)88)아
공산(空山)의 높이 올라 고국(古國)을 바라보니
금강(錦江)이 적막(寂寞)하고 촉성(蜀城)이 향연(香然)이라
만강수회(滿江愁懷)를 노래로 화답하며
두자미(杜子美) 어진 마음 야월(夜月)의 기배회(起徘徊)89)라
호천(呼天)90)에 천막막(天漠漠)이요 지호(地呼)에 지불응(地不應)91)을
동령(東嶺)에 돋은 달이 서봉(西峰)에 꺼지도록
여기서 왜 울고 저기서 왜 우니
초국(招國)이 천일애(千日哀)92)라
지로천황(地老天荒)93)의 차한(此恨)이 불멸(不滅)이요
해고석란(海枯石爛)94)의 차정(此情)을 난소(難消)95)로다
만리(萬里)에 울어오는 미귀(未歸)96)한 마음이요
천리(千里)의 제송(啼送)97)함은 생각하는 눈물이라
흔비춘수(魂飛春樹)98)하니 슬픔이 가이 없고
혈염화점(血染花枯)99)하니 원(冤)이 다시 깊었도라
제 일이 이러할 뿐더러
재산지일(在山之日)100)은 다(多)하고 재가지일(在家之日)101)은 소(少)하니
하명(何鳴)102)에 문견작구지투호(聞見鵲鳩之鬪乎)잇가
상고처치(詳考處置) 하옵소서
유학(幼學) 기러기 나이 사십(四十)이라
살등 의신(矣身)은 본(本)이 수양지조(隨陽之鳥)103)로 거재강상(居在江上)할새
작아서 풍송군안(昨夜西風送群鴈)104)하니 비공청천난분분(飛空青天亂紛紛)105)을
영과청총삼경월(影過青塚三更月)106)이요 성락창오만리(聲落蒼梧萬里雲)107)을
봉고팔월(八月) 새벽달에 일지(一陣)이 웅웅비(噹噹飛)108)라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迴)109)오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110)라
이십오현탄야숙(二十五絃彈夜夙)111)에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112)라
청천(青天)에 높이 떠서 백운(白雲)을 무릅쓰고
소상강(瀟湘江) 내려가니 칠백리(七百里) 광활(廣闊)한데
군산일점청(群山一點靑)을 일사원포(日斜遠浦)하니
줄줄이 내려오고 무권청천(無捲青天)하니 자자(字字)이 날았도다
안해무인(雁海無人)한데 소랑(蘇郎)의 만고정충변지(萬古貞忠邊地)에 목양고(牧羊羔)라
깊은 살 떼어내어 의신(矣身)의 발에 매며
신신(信信)이 부탁(付託)하되

이 길로 바삐 날아 漢陽城臺(한양성대) 돌아들어 전(傳)하여 달라하니
 아무리 미물(微物)인들 그 신(信)이야 잇을소냐
 상신상림(像信上林) 거래격월(去來隔月) 분들아
 추남춘안(秋南春雁)은 삼천우족(三千羽族)113이 중소무지(衆所無知)114오니
 하가(何暇)에 문견작구지투호(聞見鵲鳩之鬪乎)잇가
 저간 위절(委折)115은 전무불실(全無不實)오니
 상고처치(詳考處置) 하옵소서
 유학(幼學) 백로(白鷺) 나이 칠십(七十)이라
 살등 의신(矣身)은 수왈우족(雖曰羽族)이나 겸동수족(兼同水族)이라
 일생종적(一生踪跡)을 부지강호(付支)116江湖하니
 지재노월(志在蘆月)117이요 우재어전(友在漁前)118이라
 단안소우(短岸疎雨)119에 강남(江南)을 꿈꾸다가 노인원비거(驚人遠飛去)120하니
 직향사군탄(直向使君灘)121을 서사산전(西斜山田)의 한가이 날을 적에
 도화유수(桃花流水)의 곶어(鰓魚)122가 살찌겠다
 홍요(紅蓼) 밝은 달에 어적수성(漁笛數聲)123 추만강(秋滿江) 노적(蘆荻)124에
 하아(霞鵝)가 섞여날고 추수(秋水) 잔잔하여 하늘과 한빛이라
 두자강(杜子江) 양자강(楊子江)을 이웃삼아 벌려두고
 별별전린(瞥瞥全鱗)125을 임의로(任意)로 사냥하니
 금(禁)할 이 뉘 있으리
 팔경(八景)이 즐다하니 차례로 다보리라
 동정(洞庭)에 추월(秋月)이며 소상강야우(瀟湘江夜雨)로다
 어촌(漁村)에 낙연(落然)하고 강천(江天)의 모설(暮雪)이라
 원포귀범(遠浦歸帆)도 즐거니와 평사낙안(平沙落鴈)이 경(景)이로다
 산시청람(山市靑嵐)을 보고나니 연사모종(烟寺暮鐘)이 즐을시고
 팔경(八景)을 다본 후에 세류령 돌아드니
 무인고기(無人古磯)에 창태(蒼苔)126만 남아있다
 종적(踪跡)이 이러한즉 아는 바 수족(水族)이라
 해시물종(海市物種)이 나본대로 이로리라 127
 리어(鯉魚) 경어(鯁魚) 노어(蘆魚) 황어(黃魚)
 망어(芒魚) 연어(蓮魚) 석어(石魚) 오적어(烏賊魚)
 전어(箭魚) 문어(文魚) 홍어(紅魚) 송어(松魚)
 방어(魴魚) 은어(銀魚) 운어(雲魚) 청어(靑魚)
 갈치 준치 복아지 해삼(海蔘) 전복(田蝸)
 가오리 가물치 황대구(黃大口) 백대구(白大口)
 대합(大蛤) 중합(中蛤) 소합(小蛤) 춘태(春太)
 동태(冬太) 생발이 대(大)게 중(中)게 소(小)게
 말뚝게 밤게 옆새우 자라 도로목 멀치 콩치
 보가지 128) 가제미 쏘가리 눈검댕이 날별이 중고기

무당고기 버드장이 쇠일이돌 움치 삼치 병어 홍합(紅蛤)
뱀장어 올챙이 같은 수족(水族)은 알려니와
기여(其餘) 작구지투(鵲鳩之鬪)의 소금(小禽)이 하관(何關)129)이리요
상고처치(詳考處置) 하옵소서
덩범 비둘기를 잡아들여 문목(問目)130)할세
이놈 너는 연하사반(何事飯)으로 싸워
하월(何月)
이생원택전(李生員宅前)

[각주]

- 1) 어제(御製) : 임금이 몸소 글을 짓거나 물건을 만듦. 여기에 나오는 시는 조선 19대 왕인 숙종(肅宗)의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은 시로 전한다.
- 2) 간치 : ‘까치’의 방언.
- 3) 고루갑제(高樓甲第) : 높은 누대와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
- 4) 고즉고의(高則高矣) : 높고도 높다.
- 5) 화즉화의(華則華矣) : 화려하고도 화려하다.
- 6) 어지어지 : 어질지.
- 7) 기양(飢穰) : 흉년과 풍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 상심주(桑椹酒) : 오디를 말려 볶은 후 포도주와 설탕과 계피를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술.
- 9) 관광제금(觀光諸禽) : 모든 동물들이 구경함.
- 10) 옥제이 : ‘일제히’의 뜻인 듯.
- 11) 흉당(胸膛) : 가슴 한 가운데.
- 12) 암간치 : 암까치.
- 13) 망지소조(罔知所措) : 급하거나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함.
- 14) 숨기 : 숨을 쉬는 기운.
- 15) 제혈(諸血) : 여러 가지 동물의 피.
- 16) 고관(告官) : 관청에 알림.
- 17) 발고(發告) :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신고함.
- 18) 검시(檢屍) : 사고나 재난으로 죽은 시신을 조사함.
- 19) 익은 : 경험이 많은.
- 20) 색뢰(索賂) : 뇌물을 찾음. 또는 뇌물을 받는다는 뜻의 ‘수뢰(受賂)’와 비슷.
- 21) 일익엄금(一益嚴禁) : 더욱 엄격히 금함.
- 22) 신칙(伸勅) : 조서(詔書)를 펼침.
- 23) 전배군노(前陪軍奴) : 벼슬아치가 행차하거나 상관을 만날 때 앞을 인도하는 군대의 하인
- 24) 구종(驅從) : 벼슬아치나 양반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하인.
- 25) 조롱태 : 수릿과에 속한 새로 ‘새매’의 방언.
- 26) 시친(尸親) :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
- 27) 기시삼증(期時參證) : 시간과 날짜에서 참고가 될 만한 증거.
- 28) 의신(矣身) : 1인칭 ‘저’라는 뜻.
- 29) 연금(年今) : 지금 나이.
- 30) 집언(執言) : 말로 붙잡음.
- 31) 구타치사(毆打致死) : 때려서 죽음.
- 32) 선위탈가지계(先爲奪家之計) : 먼저 집을 뺏으려는 계책.
- 33) 종시불청(終時不聽) : 끝까지 듣지 않음.
- 34) 족척흉당(足躑胸堂) : 발로 가슴 한가운데를 참.
- 35) 신상반흔단(身上斑痕段) : 몸에 얼룩진 상처.
- 36) 금환(金丸) : 금칠을 한 공을 몸과 팔을 휘두르면서 공중으로 놀리는 모양을 달과 별에 견주어 노래

하며 노는 놀이.

37) 좌액낙우(左腋落羽) : 왼쪽 겨드랑이에서 떨어진 날개.

38) 이일간증(伊日間證) : 이날 사이에 증명함.

39) 납초(納招) : 불러들여 살핌.

40) 유학(幼學) :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41) 투홍위절(鬪鬪委折) : 싸우게 된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

42) 옥안(獄案) : 재판에서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43) 이정(理定) : 이정(理正)이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정리하여 바로 잡는다는 뜻.

44) 출자유곡(出自幽谷) : 깊은 골짜기에서 나옴.

45) 천우교목(遷于喬木) : 높다란 나무에서 옮겨옴.

46) 사사눈류(絲絲嫩柳) : 가지마다 어린 버드나무.

47) 자작금사(自作金梭) : 스스로 금칠한 복을 만듦.

48) 구십춘광(九十春光) : 봄철의 약 구십일 동안 맑고 깨끗한 날씨.

49) 타기황앵아(打起黃鶯兒) : 어린 까마귀새를 치다.

50) 경비이주(輕飛移株) : 그루터기에 가볍게 옮겨 날다.

51) 정부(征婦) : 전쟁터로 나가는 여인. 정부(征夫)의 오기(誤記)인 듯.

52) 만도동산(晩到東山) : 저녁에 동산에 도착하다.

53) 일취도홍주(一醉桃紅酒) : 도홍주에 취하다.

54) 객사청청유색신(客舍青青柳色新) : 객사의 버드나무는 더욱 푸르러 싱싱하다.

55) 유녹도홍(柳綠桃紅) : 버드나무는 푸르고 복숭아꽃은 붉다.

56) 면면만만설(綿綿蠻蠻舌) : 만만(蠻蠻)은 비익조(比翼鳥)를 뜻하며, 비익조가 계속 노래한다는 뜻.

57) 화제(花諸) : 모든 꽃.

58) 수인(愁人) :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

59) 불매(不寐) : 잠들지 못하다.

60) 환우동서맥(喚友東西陌) : 동서 경계에서 친구를 부른다.

61) 모석투금(暮夕投金) : 저물어가는 저녁에 금을 던지다.

62) 수양갱대(垂楊更帶) 조연(朝烟)이라 : 늘어진 버들은 아침 안개 돌렸네.

63) 일모서산(日暮西山) : 서산에 해가 지다.

64) 복여차(復如此) : 또다시 이와 같다.

65) 전후사상(前後死傷) : 앞뒤로 죽거나 다치다.

66) 전연(全然) : 조금도, 아주, 완전히.

67) 상고처치(詳考處置) : 자세히 따져서 처리하여 조치하다.

68) 왕사당(王謝堂) : 중국 동진(東晉) 때 재상인 왕도(王導)와 사안(謝安)의 가족들이 사는 집에 제비가 찾아온다는 내연당(內燕堂)을 달리 말한다.

69) 기무회구지심호(豈無懷舊之心乎) : 어찌 지나온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70) 칩충(蟄蟲) : 겨울철에는 활동하지 않고 땅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벌레.

71) 우공(禹貢) : 우(禹)임금이 처음으로 구주(九州)의 공물(貢物)을 제정한 것. 『서경(書經)』 우공편(禹貢篇)에 나옴.

- 72) 춘절(春節) : 봄.
- 73) 요행(僥倖) : 뜻밖에 얻은 행운.
- 74) 함니작소(含泥作巢) : 진흙을 물어 집을 짓다.
- 75) 조량(雕梁) : 처마.
- 76) 여가여어(如歌如語) :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 77) 웅비종자(雄飛從雌) : 수컷이 날자 암컷이 따름.
- 78) 교축양화(嬌蹴楊花) : 아름다운 발로 버드나무 꽃을 차다.
- 79) 일난풍화(日暖風和) : 날을 따뜻하고 바람은 잔잔하다.
- 80) 운담풍경(雲淡風輕) : 옅은 구름과 산들바람.
- 81) 호량신(好良辰) : 아주 좋은 때.
- 82) 비래비거(飛來飛去) : 날아오고 날아가다.
- 83) 모연힐항(暮烟靄靄) : 저녁 연기에 새들이 오르내리며 날다.
- 84) 하가(何暇) : 어느 겨를에
- 85) 문견(聞見) : 보고 들음.
- 86) 촉제여혼(蜀帝餘魂) : 촉나라 임금의 넋이 변화하여 원한 맺힌 새를 가리킴.
- 87) 낙재하토(落在下土) : 농사짓기 나쁜 땅으로 떨어지다.
- 88) 기무회국지심호(豈無懷國之心乎) : 어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 89) 야월(夜月)의 기배회(起徘徊) : 달밤에 일어나 서성이다.
- 90) 호천천막막(呼天天漠漠) : 하늘에 부르짖으나 하늘은 쓸쓸하고 고요하다
- 91) 지호지불응(地呼地不應) : 땅에 부르짖으나 땅은 대답하지 않다.
- 92) 초국천일애(招國天日哀) : 나라가 불러줘도 해는 슬프다. 원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天’이 맞은 표현임.
- 93) 지로천황(地老天荒) : 길고 긴 세월.
- 94) 해고석란(海枯石爛) : 바닷물이 마르고 돌이 썩다. 또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
- 95) 난소(難消) : 지우기 어려움.
- 96) 미귀(未歸) : 아직 돌아오지 않음.
- 97) 제송(啼送) : 울면서 보냄.
- 98) 혼비춘수(魂飛春樹) : 혼이 봄나무에 날아.
- 99) 혈염화점(血染花枯) : 피로 물들어 꽃이 마르고.
- 100) 재산지일(在山之日) : 산에 있는 날.
- 101) 재가지일(在家之日) : 집에 있는 날.
- 102) 하명(何鳴) : 어이하여 우는가.
- 103) 수양지조(隨陽之鳥) : 양을 따르는 철새로 기러기를 뜻함.
- 104) 작야서풍송군안(昨夜西風送群鴈) : 어젯밤 서풍에 기러기들 날아가고.
- 105) 비공청천난분분(飛空青天亂紛紛) : 푸른 하늘에 어지럽게 날아가네.
- 106) 영과청총삼경월(影過青塚三更月) : 깊은 밤 푸른 풀 무성한 무덤 그림자 지나가니.
- 107) 성락오창만리운(聲落蒼梧萬里雲) : 푸른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 만리에 구름이라.
- 108) 웅웅비(噹噹飛) : 기러기가 짹짹 날아가다.

- 109)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廻) : 소상강에 무슨 일로 한가로이 떠도는가.
- 110)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 푸른물 밝은 모래 양언덕에 이끼로세
- 111)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絃彈夜月) : 이십오현 거문고를 달밤에 연주하니.
- 112) 불승청원각비래(不勝淸怨却飛來) : 맑고 구슬픈 소리 참을 수 없네.
- 113) 삼천우족(三千羽族) : 새의 종류가 삼천종이라는 뜻.
- 114) 중소무지(重所無知) : 우리들이 어디 있는지 모름.
- 115) 위절(委折) :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
- 116) 부지(付支) : 의지하다. ‘부지(扶支)’가 바른 표현.
- 117) 지재노월(志在蘆月) : 뜻은 갈대와 달에 있고
- 118) 우재어전(友在漁前) : 벗은 어부들 앞에 있다.
- 119) 단안소우(短岸疎雨) : 얇은 언덕에 거친 비 내리다.
- 120) 노인원비거(驚人遠飛去) : 백로가 사람에게 놀라 멀리 날아가버리다. 이백(李白)의 <부득백로사송 송소부입삼협(賦得白鷺送宋少府入三峽)>에 나오는 구절로 원문에서는 ‘驚人’이 아닌 ‘人驚’으로 쓰여 있다.
- 121) 직향사군탄(直向使君灘) : 바로 사군탄 여울로 향하다.
- 122) 꺾어(鰈魚) : 농엇과에 속한 민물고기.
- 123) 어적수성(漁笛數聲) : 어부들이 부르는 피리소리.
- 124) 노적(蘆荻) : 갈대와 물억새.
- 125) 별별전린(瞥瞥全鱗) : 비늘있는 별의별 물고기
- 126) 창태(蒼苔) : 푸릇푸릇한 이끼.
- 127) 이로리라 : 이로우리라.
- 128) 보가지 : ‘황복’의 방언.
- 129) 하관(何關) : 무슨 상관.
- 130) 문목(問目) : 죄인 등을 신문(訊問)하는 조목(條目).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